

환율·주식 등 금융위기 수준 쇼크... 가계·기업 비용부담 확산

중동 리스크, 한국 흔들다

④ 경제 복합위기 <끝>

달러 강제... 환율 1500원대 웃돌아 코스피,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낙폭 채권, 바이백 등 정책대응 '버티기'

중동 전쟁이 격화되며 우리나라의 환율·금리·증시 등 금융시장을 한꺼번에 흔들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기준 1505.2원, 코스피는 2일 기준 5234.05를 기록했다. 같은 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448%, AA- 3년 물 회사채 금리는 4.093%로 집계됐다. 숫자만 놓고 봐도 환율·주식·채권이 동시에 긴장 상태에 들어간 셈이다.

◆ 금융시장 직격탄

주식과 환율이 가장 먼저 흔들렸다. 3월 말 코스피는 월간 기준 약 19% 밀려 2008년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



지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5234.05)보다 143.25포인트(2.74%) 오른 5377.30에 마감했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519.7원)보다 14.5원 내린 1505.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고, 2월 말 고점 대비로는 19.9% 하락했다. 외국인도 3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주식을 35조900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원화 가치는 한때 달러당 1500원을 웃돌며 2009년 금융위기 직후와 외환위기 이후에나 보였던 수준까지 약세를 보였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원장 겸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는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주가가 거품 영역에 있

었던 것 같다"며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 최근 소비 심리와 기업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어 실제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높아졌던 기대가 중동 변수와 만나며 시장 조정을 키웠다는 의미다.

채권시장도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지난달 23일 한국의 기준물 국채금리는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다. 다만 주식·환율과 달리 채권에는 정책

대응이 곧바로 붙었다. 정부는 최근 변동성이 커진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조5000억원씩 두 차례, 총 5조원 규모의 긴급바이백을 실시했다. 여기에 4월 1일부터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단계 편입이 시작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도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들어 사흘간 4조 4000억원이 넘는 외국인 자금이 국채시장으로 유입됐다고 밝혔다. 환율과 주식이 직접 충격을 맞는 동안 채권은 정책 대응과 지수 편입 효과로 일부 완충 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 미 금리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여전 대외 여건도 한국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의 3월 비농업 일자리는 17만 8000명 늘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실업률도 4.3%로 낮아졌다. 시장은 이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인하 기대를 더 약하게 만드는 신호로 보고 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까지 겹치면서 달러 강세와 글

로벌 금리 상방 압력이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국 입장에서 원화 약세와 조달금리 부담이 동시에 길어질 수 있다.

기업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도 이미 커지고 있다. 3월 한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투입가격 상승률도 유가 급등과 원화 약세 영향으로 2022년 6월 이후 가장 가팔랐다. 기업은 수입 원가와 환헤지 비용, 회사채 조달금리 상승을 함께 감내해야 하고, 가계는 대출금리 부담이 길어지는 가운데 생활비 압박까지 버티야 하는 구조다.

결국 중동 리스크는 유가를 넘어 한국 금융시장의 가격변수들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 환율과 주식이 먼저 충격을 받고, 채권도 금리 급등 압력 속에 정책 대응으로 버티는 사이, 가계와 기업은 더 높은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한전·전력그룹사, '경제 전시상황' 대응

전력망 확충·지산지소 활성화 등 논의 김동철 사장 "에너지 절감 솔루션부"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인식하고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에 나선다.

한전과 10개 전력그룹사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5개 발전공기업과 한전 KPS, 한전KDN 등 전력계통 핵심 관계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환율 및 국제 연료가격 급등이 재무 구조에 미칠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전력공급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중동 정세 관련 재무위기 대응 현황 ▲한전의 고강도 에너지 절감 종합 대책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전략 △미래 전력망 구축 과제 등 경영 현안 전반에 걸친 폭넓은 협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 적기 확충'과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활성화'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비한 로드맵도 심도 있게 다뤘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이번 회의를 기

점으로 2025년 전력그룹사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인 약 513GWh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 '중동 자원위기 대응 및 국가적 에너지 절감 선도 공동선언'을 통해 전력공급 안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국민 캠페인과 국가에너지 안보 강화에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정부의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솔선수범해 이행하고, 전력그룹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후티·헤즈볼라 가세... 이스라엘은 침묵

>> 1면 '지옥문 압박...'서 계속

방사능 낙진은 테헤란이 아니라 걸프국들의 수도에 거주하는 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공격받았을 때 서방의 분노를 기억하는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특히 예멘 후티와 레바논 헤즈볼라도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 알마시라TV 보도에 따르면 후티군은 이란혁명수비대, 헤즈볼라와 합동 작전으로 이스라엘 벵구린은 공항 및 주요 군사요충지에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가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 또는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후티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스라엘 쪽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개시했다. 후티군은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동맹국군대를 지원한다는 의도로 공습과 포격을 시작한 것.

한편 트럼프는 자국 전투기의 이란 영토내 추락으로 탈출·실종됐던 조종사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은 내 지시에 따라 그를 데려오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들로 무장한 수십 대의 항공기를 보냈다"며 "그 병사는 부상을 입었지만 관심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의정부viewtiful

시민이 직접 뽑은 의정부 8경(景)

망월사

▶ 기암절벽 속 숨은 고찰, 망월사

미술도서관

▶ 국내 최초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 미술도서관

수락산 도정봉

▶ 화강암 능선이 펼쳐진 경관, 수락산 도정봉

음악도서관

▶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간, 음악도서관

의정부경전철

▶ 의정부 구석구석을 잇다,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예술의 전당

▶ 감동과 열정! 의정부 문화예술의 중심, 의정부 예술의 전당

의정부제일시장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우수 재래시장, 의정부 제일시장

회룡사

▶ 태초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전설을 만나다, 회룡사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